

## Verdict

시장은 BTC의 7만 달러 돌파와 DXY 100선 하회를 근거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기관 투자자 74%의 긍정적 전망과 달러 약세 추세가 결합되어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되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임. 현물 ETF의 단기 자금 유출은 일시적 리밸런싱으로 간주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랠리의 연료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포지셔닝을 주도하고 있음.

하지만 직전 판정(3/19)의 약세 뷰를 유지해야 하는 결정적 근거가 여전히 존재함. 첫째,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재가속'이 충족되지 않았음—현재 1개월 수익률은 +5.34%로 무효화 임계치(+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직전 판정 시점의 +5.43%에서 오히려 소폭 감속(-0.09%p)함. 둘째, BTC 3개월 수익률 -25.79%와 고점 대비 낙폭 -27.19%는 직전 판정 시점(-25.57%, -26.63%)에서 추가 악화되어 구조적 하락 국면 진입이라는 핵심 전제가 강화됨. 셋째,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핵심 논거인 금과의 동조화가 데이터로 검증 불가(상관관계 데이터 부족)한 가운데, 금 자체도 1개월 수익률 -8.09%로 하락 중이어서 '달러 약세 = 대체자산 강세'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VIX 25.18의 공포 수준 지속(1개월 +24.47%)은 시장이 BTC를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연방기금금리 3.64%와 견조한 고용(ICSA 205,000건)은 조기 유동성 공급 기대를 차단하고 있음.

**Action:** BTC 롱 포지션 점진적 축소 기초를 유지하며, 1개월 수익률 +5% 하회 여부를 모니터링 강화.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0% 이상으로 재가속할 경우 약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연방기금금리 3.64% 및 ICSA 205,000건 견조로 연준 긴축 장기화 시 글로벌 유동성 환경 악화가 BTC 위험자산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 기술적/포지셔닝: 기관 투자자 긍정 전망 74%와 현물 ETF 이틀간 9,000만 달러 유출 간 괴리가 확대될 경우, 내러티브 붕괴에 따른 급격한 포지션 청산 가능성, 이벤트: 이더리움 규제 불확실성 또는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발표 시 시장 전반적 리스크 오프 촉발

##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DXY 100 하회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환경 개선, 현물 ETF를 통한 제도권 금융기관(모건스탠리 등)의 본격 진입,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VIX 상승에 따른 고변동성 국면

**Dominant Narrative:** 비트코인이 7만 달러(\$70,606.2)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며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 달러 인덱스(DXY)가 100선 아래인 99.49로 하락한 것과 기관 투자자 74%의 긍정적 전망이 결합되어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적임. 다만 연준의 금리 동결(3.50%) 및 이더리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산 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음.

**Reality:**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05,000건)는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주나, VIX 지수가 25.22까지 상승하며 시장 내 잠재적 위험 회피 심리가 공존하고 있음. CPI(327.46)가 시사하는 끈적한 물가 압력 속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틀간 약 9,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점은 단기적 유동성 경색 위험을 내포함. 10Y-2Y 금리 스프레드가 0.46으로 양전환된 상태에서 실물 경제 지표(INDPRO 102.55)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비트코인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임.

## Hypotheses

**Key Question:**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이 향후 1~2주 내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BTC 1개월 수익률이 +10% 이상으로 재가속하는가, 아니면 유출이 지속되며 VIX 상승과 동조화된 위험자산 매도 압력이 가격 조정을 유발하는가?

## Tensions

기관 투자자의 74%가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며 제도권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현물 ETF에서는 이틀간 약 9,000만 달러가 유출되며 실질 자금 흐름과의 괴리가 발생함.

0.70

Narrative: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기관의 본격 진입 및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제도권 자금의 지속적 유입 기대

Reality: 이틀 연속 현물 ETF 자금 유출(9,000만 달러) 및 단기 유동성 경색 위험 상존

BTC ETH

DXY 100 하회에 따른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으나, VIX 지수(25.22) 상승과 고물가 압력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게 함.

0.50

Narrative: 달러 약세(DXY 99.49) 및 7만 달러 돌파 시도를 통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 강화

Reality: VIX 지수 급등(25.22) 및 끈적한 CPI(327.46)가 시사하는 매크로 불확실성 속 위험자산 성격 유지

BTC GOLD DXY VIX

글로벌 유동성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한 추가 랠리 기대감이 지배적이나, 견조한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강화하여 조기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0.40

Narrative: DXY 100 하회 및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환경 개선과 추가 상승 랠리 기대

Reality: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05,000건)의 견조함과 연준의 금리 동결(3.50%) 기조에 따른 긴축 유지

BTC NDX US10Y

##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75%;"></div>	3.75
Tension	<div style="width: 50%;"></div>	4
Hypothesis	<div style="width: 8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60%;"></div>	3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60%;"></div>	3

**Feedback:** 1. 매크로 데이터 정확성 심각 오류: 연방기금금리(FEDFUNDS)를 3.50%~3.6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현재 실제 금리(5.33% 수준)와 괴리가 매우 커 분석의 신뢰성을 저해함. FRED 데이터 연동 시 최신성 확보가 시급함. 2. 파이프라인 논리 순서 모순: '데이터 쇼핑리스트'에서 요청 중인 데이터(금 수익률 -8.09%,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가 이미 '판정 논리(Rationale)'에 상세히 인용되어 있음. 데이터 획득 후 판정이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함. 3. 내러티브 검증 정교화: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반박하면서 사용된 금의 수익률 및 상관관계 데이터가 비트코인의 가격 행동과 어떤 인과를 갖는지 더 구체적인 상관계수 수치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시장의 뷰: 시장은 BTC의 7만 달러 돌파와 DXY 100선 하회를 근거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기관 투자자 74%의 긍정적 전망과 달러 약세 추세가 결합되어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되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임. 현물 ETF의 단기 자금 유출은 일시적 리밸런싱으로 간주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랠리의 연료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포지셔닝을 주도하고 있음.

**결론: 비트코인의 7만 달러 돌파 내러티브는 실질 유동성 흐름과 괴리된 과잉 낙관이며, VIX 25.22 수준의 변동성 확대와 현물 ETF 자금 유출이 시사하는 단기 유동성 경색이 가격 조정을 촉발할 수 있음.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끈적한 물가 압력은 시장이 기대하는 조기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고 있으며, 견조한 고용 지표(실업수당 205,000건)는 긴축 장기화 시나리오를 강화함. 이전 판정(3/19)의 약세 전환 논리—모멘텀 감소와 구조적 하락 국면 진입—가 여전히 유효하며, 7만 달러 부근에서의 저항은 진정한 돌파가 아닌 볼트랩(bull trap)일 수 있음. [MEDIUM]**

하지만 직전 판정(3/19)의 약세 뷰를 유지해야 하는 결정적 근거가 여전히 존재함. 첫째,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재가속'이 충족되지 않았음—현재 1개월 수익률은 +5.34%로 무효화 임계치(+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직전 판정 시점의 +5.43%에서 오히려 소폭 감소(-0.09%p)함. 둘째, BTC 3개월 수익률 -25.79%와 고점 대비 낙폭 -27.19%는 직전 판정 시점(-25.57%, -26.63%)에서 추가 악화되어 구조적 하락 국면 진입이라는 핵심 전제가 강화됨. 셋째,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핵심 논거인 금과의 동조화가 데이터로 검증 불가(상관관계 데이터 부족)한 가운데, 금 자체도 1개월 수익률 -8.09%로 하락 중이어서 '달러 약세 = 대체자산 강세'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VIX 25.18의 공포 수준 지속(1개월 +24.47%)은 시장이 BTC를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연방기금금리 3.64%와 견조한 고용(ICSA 205,000건)은 조기 유동성 공급 기대를 차단하고 있음.

→ BTC 롱 포지션 점진적 축소 기조를 유지하며, 1개월 수익률 +5% 하회 여부를 모니터링 강화.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0% 이상으로 재가속할 경우 약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